해외금융 뉴스
일본

아베 정권, 일본경제 살리기에 전력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지난 26일 출범한 자민당 아베 신조(安倍晋三) 정권이 공격적인 양적완화 조치로 엔화가치를 낮춰 강한 일본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함.

- 아베 총리는 일본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2011년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경제, 외교, 교육, 동북아 재편 등에서 총체적인 국가 위기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내각을 구성한다고 밝힘.
  - 그는 엔화 약세를 유도해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수출 및 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함.
- 특히, 목표 물가상승률을 2%로 설정한 것과 엔화 가치 절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중앙은행(BOJ)에 양적완화 조치를 압박하였음.
  - 양적완화 조치를 통해 통화가 팽창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엔화 가치는 떨어지게 됨.

■ 한편, 아소 다로(麻生太郎) 부총리겸 재무상도 기자회견을 통해 연간 44조 엔 수준인 국채발행한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혀 디플레이션 타개와 엔화강세 억제라는 아베총리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함.

- 아소 재무상은 더불어 71조 엔으로 책정된 2013년 재정지출을 상한에 관계없이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며,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물가 안정을 목표로 중앙은행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요청하였음.
  - 특히, 2014년 4월 시행 예정인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도 경기가 상승하지 않으면 올릴 수 없다고 밝혀 인상계획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밝힘.
- 한편, 강력한 금융완화를 주장해 온 아베 정권이 공식 출범하면서 이날 엔화는 달러화 대비 2010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음.

(시사통신 外, 12/27)